중소벤처기업부 | 보도자료 |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(지 면) 5. 22.(월) 조간
(인터넷) 5. 21.(일) 12:00

‘기술보호지원반’ 확대 편성한다

- ‘기술보호지원반’ 전문가 인원을 전체 49명에서 80명으로 확대

-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변호사, 변리사 등 기술보호 전문가 모집

- 새로 선정된 전문가는 기술보호 수요에 맞게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별 전담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영)는 중소기업에 기술분쟁 사건의 신속한 초동 지원을 위해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별로 구성된 ‘기술보호지원반’ 전문가를 현재 전체 49명에서 80명으로 확대 편성하고,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신규 전문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.

* 지원자격, 절차 등 모집공고문은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(www.ultari.go.kr) 참조

신규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지역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수요를 고려하여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별로 전담할 계획이며, ‘기술보호지원반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관부처 기술보호 제도 등에 대한 직무교육도 6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.

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형 기술보호 지원을 위해 2018년에 도입된 ‘기술보호지원반’은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, 변리사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 기술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민·관 합동 조직이다.

‘기술보호지원반’은 지역 중소기업에게 기술보호 사전예방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기술침해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대응방향을 설정해주며 관련 기술보호 제도를 안내해주는 현실공간(오프라인) 접수창구 역할도 수행해왔다.

* 지원실적(건) : (’18) 24 → (’19) 30 → (’20) 169 → (’21) 181 → (’22) 178

이영 장관은 “전문가 확대를 통해 신청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기술보호 대응 수단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	책임자	과 장	정재훈 (044-204-7780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환 (044-204-7781)
			주무관	박원택 (044-204-7687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